

## 인터뷰-양 캠퍼스 졸업준비위원회 위원장

## “학우들에게 ‘경희’로운 추억 선물하겠다”

이지수 기자 ssu1404@khu.ac.kr  
최예령 기자 herry2020@khu.ac.kr

# 2022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이 서울캠퍼스(서울캠) 평화의 전당, 국제 캠퍼스(국제캠) 선승관에서 각각 4년 만에 대면으로 진행됐다. 우리신문은 양 캠퍼스 졸업준비위원회(졸준위장)를 만나 이번 학위수여식에 대한 소회와 준비 과정에 대해 들어봤다. 졸준위장은 서울캠에서 최정준(생물학 2017) 씨가, 국제캠에서 강민재(기계공학 2018) 씨가 각각 맡고 있다.

**Q. 졸업준비위원회(졸준위)는 어떤 곳인가?**

**A.** 졸준위는 졸업 예정자의 졸업앨범 제작 전반을 총괄하고 있다. 서울캠은 총학생회(총학) 산하 특별 기구 학원자주화추진위원회 소속으로, 국제캠은 총학 산하 상설 위원회로 운영된다.

**Q. 졸준위가 구성된 과정이 궁금하다.**

**A. 서울캠** 지난해 1학기 시작과 함께 졸준위를 구성했으며, 전기 학위수여식까지 활동한다. 서울캠에 있는 학과, 학부, 단과대학 졸준위장과 총졸준위장, 부총졸준위장 등 총 45명의 인원이 모였다.

**국제캠** 총학생회장으로부터 졸준위장 직무를 임명받았으며, 현재 졸준위장 포함 총 4명의 인원이 졸준위로 구성돼 있다. 이전 졸준위의 2022학년도 전기 졸업자의 졸업앨범 업무 인계가 완료돼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오는 4월부터 2022학년도 후기 졸업자의 졸업앨범 촬영



서울캠 최정준 졸업준비위원회 위원장 (사진1) 국제캠 강민재 졸업준비위원회 위원장 (사진2)  
(사진1=이지수 기자), (사진2=서세종 기자)

업무를 진행할 예정이다.

**Q. 이번 학위수여식은 4년 만에 대면으로 진행된다. 졸준위로서 소회가 남달랐을 것 같은데?**



서울캠 최정준 졸업준비위원회 위원장 (사진1) 국제캠 강민재 졸업준비위원회 위원장 (사진2)  
(사진1=이지수 기자), (사진2=서세종 기자)

**A. 서울캠** 2019년도에 평화의 전당에서 졸업하는 선배들을 축하해주던 기억이 난다. 완전한 대면행사로 진행되는 졸업을 함께 준비할 수 있어 영광이었다.

**국제캠** 대면으로 진행되는 모습에

서 영원할 것 같던 코로나19로 인한 과도기가 끝나고, 학생 사회가 부활하고 있음에 안도와 생기를 느꼈다.

**Q. 올해 어떤 활동들을 했나?**

**A. 서울캠** 졸업앨범 제작 전반을 진행했으며, 학사 졸업가운 리뉴얼에 대한 학생 의견을 학교에 전달했다. 이어 학사 졸업가운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졸업가운의 비공식 스타일을 제작하고, 이를 대여하는 사업을 진행했다.

**국제캠** 2022학년도 전기 졸업자 졸업앨범 배부를 진행했다. 2월 15일부터 17일까지는 졸업가운 스타일 대여를 시행한다.

**Q. 어떤 것에 중점을 두고 졸준위를 운영했는가?**

**A. 서울캠** 졸업식은 길었던 대학 생활을 마무리하는 순간이다. 이를 생각하며 졸준위를 운영했다. 졸준위장 본인도 졸업을 앞두고 있어 나의 졸업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학사 졸업가운 개선과 같은 활동을 진행했다. 적은 수이지만 졸업가운 스타일을 제작해 기존 졸업가운이 주는 단조로운 느낌을 변화시키려 노력했다. 졸업생들이 더욱 아름다운 기억을 남길 수 있길 바란다.

**국제캠** 지금까지는 업무 인수인계에 집중했다. 오는 3월 중순부터 졸준위는 2022학년도 후기 졸업생을 대상으로 졸업앨범의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맞춰 졸업생들을 위한 업체를 학생지원센터와 선정할 예정이다.

**Q. 기억에 남는 일화는?**

**A. 서울캠** 졸업가운 스타일 대여와 관련해 보여주신 응원과 칭찬의 말씀이 기억에 남는다. 스타일은 서울캠 총학에 소속된 의상학과 학우가 자체적으로 디자인해 제작했다. 간단하지만 눈에 띠는 변화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해 사업을 진행했고, 졸업식 날 많은 졸업생이 졸업가운에 스타일을 걸치고 사진을 찍는 모습에 뿐만 아니라 학사 졸업가운 리뉴얼과 관련해 좋은 사례로 쓰일 수 있으면 좋겠다.

**국제캠** 학위수여식이 4년 만에 대면으로 진행됨에 따라 졸업생분들의 적극적인 문의가 잇따랐다. 이는 졸업생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주고 계신다는 증표이며 졸준위는 한 분한 분의 의견에 경청하고 반영을 위해 힘쓰는 중이다.

**Q. 마지막으로 학우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A. 서울캠** 대학 생활의 마침표를 찍는 여러분의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 드린다. 학우 여러분들이 내딛는 앞으로의 발걸음에 행운이 따르길 기원한다.

**국제캠** 계묘년이 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시간은 2023학년도 개강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본격적인 대면 학기의 개막이 어느 학우 여러분들께서 역설적으로 수미상관을 이뤄 대학 생활의 폐막식이기도 할 것이다. 학우 여러분들에게 ‘경희로운’ 추억을 만들도록 항상 노력하겠다. 포토존에서 학우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추억 부디 남겼으면 좋겠다.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

## 경희대학교 대학주보 제72기 신입기자 공개모집



## 지원자격

- 경희대학교 재학생, 휴학생, 복학생 (학년 무관)
- 학생자치기구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자

2023년 3월 17일(금)  
서류제출 마감

## 모집전형

- 신입 취재(0명) (3학기 이상 활동이 가능한 자)
- 경력직(0명) (대학주보를 포함한 학보사에서 정기자 이상 자격을 취득한 자 / 기성 언론사에서 인턴 직무 수행 경험이 있는 자)

## 선발일정

- 1차 서류 제출 마감 : 3월 6일(월) ~ 17일(금)
- 2차 면접평가 : 서류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 지원방법

대학주보 홈페이지 배너에서 지원서 작성 및 제출(대학주보: media.khu.ac.kr/khunews)